

	<u>원인</u>	<u>문제</u>	<u>사례</u>	<u>해결책</u>
①	숨겨진 특징 (hidden characteristics)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중고차 시장	강제보험
②	숨겨진 특징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신규차 시장	성과급
③	숨겨진 행위 (hidden action)	도덕적해이	주인과 대리인	감시강화
④	숨겨진 행위	역선택	노동시장	최저임금

3. <정답> ③

<해설> 숨겨진 특성은 역선택, 숨겨진 행위는 도덕적 해이와 연관된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강화, 성과급 지급, 기초공제, 공동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서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있다.

문4. 어느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가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해 단위당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하였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재화의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국내시장가격은 국제가격보다 관세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상승한다.
- ② 사회적 순후생손실(net welfare loss)은 국내 소비량의 감소나 생산량의 증가와 무관하다.
- ③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 ④ 총잉여는 관세부과 이전보다 감소한다.

4. <정답> ②

<해설> 소국개방경제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국제가격의 변화를 줄 수 없으므로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관세를 부과한 크기만큼 오르게 된다. 그러면 생산자잉여는 늘어나고,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다. 그러나 늘어나는 생산자잉여의 크기보다 줄어드는 소비자잉여가 훨씬 커 총사회후생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사회적 후생손실은 아래 그래프에서 $\triangle ACD + \triangle BEF$ 로 나타난다. $\triangle ACD$ 는 자국기업의 생산량 증대로 인한 후생손실이고, $\triangle BEF$ 는 국내소비의 감소로 인한 후생손실의 부분이다.

후 타인에게 1,500만원에 판매하였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 200만원은 올해의 부가가치에는 포함된다.

문7. 생산자비용 및 생산자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생산량 증가 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면 평균비용은 하락한다.
- ② 공급곡선이 원점을 통과하여 우상향하는 직선인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기울기에 관계없이 모두 1이다.
- ③ 한 재화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범위의 경제라 한다.
- ④ 총비용곡선이 직선인 경우에도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0이나 무한대가 될 수 없다.

7. <정답> ②

<해설> 공급곡선이 원점을 통과하여 우상향하는 직선인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분모와 분자 크기가 동일하여 기울기에 관계없이 모두 1이다.

- 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면 평균비용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 ③ 한 재화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범위의 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라 한다.
- ④ 총비용곡선이 직선인 경우에는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이다. 이에 이윤극대화 조건에 해당되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산출량은 0이나 무한대 보다는 일정한 균형해가 존재한다.

문8. 거시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급측면에서 부정적인 충격(negative supply shock)이 있을 때, 총수요관리정책은 물가안정과 고용증대에 유용하다.
- ② 고전학파이론은 가격과 임금의 신축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슈 분석에 유용하다.
- ③ 합리적기대가설에 따르면 예견된 일회성 통화량의 증가는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④ 상대가격과 물가수준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경우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할 수 있다.

8. <정답> ①

<해설> 공급측면에서 부정적인 충격이 있으면 총공급곡선이 좌측이동하여, 물가는 상승하고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총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더욱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현상이 발생한다.

문9. 어떤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이 재화의 공급자에 대해 재화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단위당 부과하는 세금액이 커지면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은 세금액 증가보다 더 가파르게 커진다.
-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은 더 커진다.
-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은 적다.
- ④ 세금부과 후에 시장가격은 세금부과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상승한다.

9. <정답> ①

<해설> 단위당 부과하는 세금액 즉, 종량세를 더 많이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더욱 상방으로 수직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자중적손실은 삼각형면적으로 밑변의 길이와 높이 모두 커져서 세금액 증가보다 더 가파르게 커진다. 또한 세금액은 처음에는 커지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줄어든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곡선이 레퍼(Laffer)곡선이다.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조세를 부과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frac{\text{수요의 가격탄력성}}{\text{공급의 가격탄력성}} = \frac{\text{생산자 부담분}}{\text{소비자 부담분}} = \frac{\text{공급곡선의 기울기}}{\text{수요곡선의 기울기}}$$
 여기서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은 작아지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더 커진다.

-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든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은 적은 것이 아니라 커지게 된다.
- ④ 세금부과 후에 시장가격은 세금부과액보다는 적게 상승한다.

문10. 효율적 자원배분 및 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효율적자원배분이 독점시장인 경우에도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②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소비와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완전경쟁을 통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③ 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에 따르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하면 할수록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다.
- ④ 롤즈(J. Rawls)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가 A, B 두 사람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효용을 U_A, U_B 라 할 때, 사회후생함수(SW)는 $SW = \min(U_A, U_B)$ 로 표현된다.

10. <정답> ④

<해설> 롤즈(J. Rawls)의 주장에 따르면 극단적 평등주의자로 그 사회의 최빈자의 후생이 곧 그 사회의 후생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SW = \min(U_A, U_B)$ 이다.

- ①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효율적자원배분이 독점시장이 아니라 완전경쟁의 경우에 저절로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②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정부의 개입으로 초기 부존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면, 임의의 파레토

$$10\% = \frac{\Delta A}{A} + \frac{1}{2} \times 4\% + \frac{1}{2} \times 4\% \quad \text{에서} \quad \frac{\Delta A}{A} = 6\% \text{가 된다.}$$

문13. 기업의 시장구조와 행동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두 기업이 특정시장을 50 : 50으로 양분하고 있으면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에 의한 독과점도는 5,000이다.
- ② 꾸르노(Cournot) 과점시장모델에서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시장전체의 산출량은 증가한다.
- ③ 독점적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장기균형 생산량은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이다.
- ④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13. <정답> ③

<해설> 독점적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장기균형 생산량은 평균비용의 최소점 이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잉설비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시장의 형태이다.

①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는 기업을 매출액이나 자산규모 순으로 배열하고 시장점유율을 각각의 %로 계산한 후 이들 점유율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지수이다. 시장집중도 측정방법의 하나로, 이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도가 높다. 두 기업 모두 시장점유율이 50%이므로 이를 제곱하여 더하면 $50^2 + 50^2 = 2,500 + 2,500 = 5,000$ 이 된다.

② 꾸르노 모형에서 시장전체의 산출량은 n개의 기업이 존재한다면

완전경쟁시장의 산출량 $\times \frac{n}{n+1}$ 이므로 기업 수가 많을수록 이 값은 커질 수 밖에 없다.

④ 어떤 경쟁시장이든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

문14.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세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의 최소화를 기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과 관련이 있다.
- ㄴ. 과세표준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표준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2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 과세표준구간 내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 ㄷ. 고가의 모피코트에 부과하는 세금은 세금부담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킨다.
- ㄹ. 과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의 원칙은 세금부담능력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14. <정답> ①

<해설> ㄱ. 과세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의 최소화를 기하는 것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다.

ㄴ. 과세표준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표준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2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 과세표준구간 내에서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누진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과세액이 체증하는 경우의 세금이다. 즉, 과세표준이 2배로 커지면 세금액은 2배 보다 더 커지는 세금이 누진세이다.

ㄷ. 고가의 모피코트에 부과하는 세금을 특별소비세라 한다. 이는 세금부담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보다는 부가가치세의 단일비례세율제도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키고, 사치성 물품과 고가물품에 중과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서 야기되는 낭비와 사치풍조를 간접적으로 억제 내지 통제하여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고, 국내 소비물품에는 과세하고 수출품에는 면세함으로써 수출촉진을 지원하는 데 과세의 목적이 있다.

ㄹ.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준의 국민들간에 세금 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소득공제제도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수직적 공평성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단계별 누진세율을 들 수 있다.

문15.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기 IS-LM 분석 시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일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약해진다.
- ② 단기 IS-LM 분석 시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강해진다.
- ③ 통화주의자들은 재량적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 ④ 풀(W. Poole)에 따르면 실물 부문보다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금융정책의 지표로 이자율이 통화량보다 바람직하다.

15. <정답> ④

<해설> 풀(W. Poole)에 따르면 실물 부문보다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금융정책에 관련된 통화량 지표보다는 실물 부문에 관련된 이자율이 금융정책의 지표로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 ①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일수록 LM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져, 재정정책의 효과는 강해지고 금융정책의 효과가 약해진다.
- ②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IS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져, 통화정책의 효과는 약해지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강력해진다.
- ③ 통화주의자들은 재량적 통화정책 보다는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을 펼쳐 주길 주장한다.

문16. 다음은 전통적 화폐수량설에 관한 문제이다. A국은 우유와 빵만을 생산하며 그 생산량과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2010년도의 통화량이 20억원이면 2011년도의 통화량은? (단, 통화의 유통속도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동일하다)

그러면 $PMC = 3Q$, $EMC = 2Q$ 이므로 이를 더한 $SMC = 5Q$ 가 된다.

이와 수요곡선($P = 120 - Q$)과의 교차점을 구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해가 구해진다. 이 점이 사회적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이 때의 $Q^* = 20$ 이 된다.

문19. X재화를 공급하는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실시하는 가격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X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차이가 집단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② 두 시장을 각각 A와 B, X재화 판매의 한계수입을 MR, X재화 생산의 한계비용을 MC라고 할 때, 독점기업은 $MRA = MRB = MC$ 원리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 ③ A시장보다 B시장에서 X재화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더 탄력적이라면 독점기업은 A시장보다 B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 ④ 독점기업이 제1차 가격차별(first-degree price discrimination)을 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이 산출된다.

19. <정답> ③

<해설> A시장보다 B시장에서 X재화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더 탄력적이라면, 독점기업은 A시장보다 B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이 아니라 낮은 가격을 설정해야만 이윤극대화의 행동과 걸맞게 된다.

문20. A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이 0인 상황에서, 甲이 A은행에 예치했던 요구불예금 5,000만원의 인출을 요구하자 A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을 활용하여 지급하였다. 이 경우 A은행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단,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 지급준비율은 15%이다)

- ① 고객의 요구불예금 잔고가 750만원 감소한다.
- ② 고객의 요구불예금 잔고가 4,250만원 감소한다.
- ③ 지급준비금이 법정기준보다 750만원 부족하게 된다.
- ④ 지급준비금이 법정기준보다 4,250만원 부족하게 된다.

20. <정답> ④

<해설> 초과지불준비금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요구불예금을 5,000만원을 인출하면, 법정지급준비금은 5,000만원이 모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인출한 5,000만원의 15%인 750만원 만큼의 법정지급준비금은 없어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자란 법정지급준비금은 5,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에서 750만원을 차감한 4,250만원이 모자란 상태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요구불예금이 10억원이고, 초과지급준비금이 없다는 전제이므로 법정지급준비금($10억 \times 0.15$) 1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8억5,000만원)이 대출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대출	8억 5,000만	요구불 예금	10억
지준금	1억 5,000만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요구불 예금이 5,000만원이 인출되었다면

대출	8억 5,000만	요구불 예금	9억 5,000만원
지준금	1억 4,250만		

요구불예금은 10억에서 9억 5,000만원으로 바뀌니 필요법정지급준비금은 1억 5,000만원에서 1억 4,250만원으로 바뀐다. 지준금 중에서 5,000만원으로 인출하여 주었기 때문에 기존에 1억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필요법정지불준비금은 1억 4,250만원인데 실체는 1억밖에 없으므로 모자라는 법정지급준비금은 4,250만원이 된다.